

학령기 자녀를 둔 빈곤가족의 스트레스 - 일 지역 빈곤가족의 실태와 경험을 중심으로 -

강 희 경*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있어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자녀의 교육과 사회화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가족 구조의 적절성과 가족의 적응력이나 결속력 등의 가족 기능의 적절성 등이다(Olson and Lavee, 1989; Antonovsky and Sourani, 1988; McLoyd, 1989).

그러나, 빈곤가족은 그 속성 상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족(multi-problem family)으로써, 빈곤가족의 경제적 압박이라는 스트레스는 종류나 상류층의 가족에 비해 제한 자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취약하고(Huston, 1994), 가족상황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족기능이나 심지어는 가족구조 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사회화나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Brown and Pollitt, 1996; Amaya, Ackall, Pingitore and Quiroga, 1977).

이에, 학령기 아동을 둔 빈곤가족에 있어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 대 가족과 가족 대 지역사회 양쪽 두 가지 기능 수준 모두에 있어서 자녀의 교육과 사회화

를 위해 균형과 적합성을 이루기 위해 애쓰지만, 이 과정에서 자원의 절대적 부족과 가족상황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지지 등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족 스트레스가 발생한다(Dodge, Pettit and Bates, 1994).

개인 대 가족수준에서 본다면, 빈곤은 가족의 결속력이나 적응력을 취약하게 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무기력, 우울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넣고, 결혼상태를 불안정하게 하며, 이는 결국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아동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하며, 자녀들을 잘못 양육하게 하고, 이로 인해 아동의 자존감의 상실이나 정서적 문제로 인한 행동장애를 발생시킨다(강, 1997; Bolger, Patterson, Thompson and Kuper-smidt, 1995; Huston, 1994).

또한, 가족 대 지역사회수준에서 본다면 학령기 아동인 경우 학교에서의 학습성취나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이 부모들의 요구와 상충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과 사회화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낳게 되어 자존감의 불량과 관련된 일탈, 비행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Caughy, Dipietro and Strobino, 1994).

더욱 불행한 사실은 이러한 과정이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악순환의 기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가족과정을

* 제주 한라대학 간호과

통해 이루어지는 빈곤의 학습을 차단시켜야 하며, 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은 가족 내에서 사회화와 관련된 훈련이 이루어지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이다. 즉, 이들은 총체적인 측면에서 건강의 불이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집단인 것이다(Phillips and Voran, 1994).

간호는 불이익 집단(disadvantaged population)을 보호하고 대변할 책임이 있다(Nelson, 1994). 사회경제적 요소인 빈곤은 연령, 성, 유전과 같이 수정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 아니라, 건강상태를 결정하는 유력한 인자로, 이는 어떠한 의학적 처치보다도 더 우선된다.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은 결국, 보건의료의 혜택에 있어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Barra, 1998). 가난의 불가항력, 불평등의 가속(Hoskins and lakey, 1997), 불건강한 생활양식, 표준이하의 생활이나 작업상태, 불량한 건강상태(Backlund, Sorlie and Johnson, 1996),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이해가 더욱 폭 넓어지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이들을 위한 건강증진 전략의 효과적 개발은 문제 투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에 있어서도, 개인적 수준에서 개념을 확대시켜 사회적 수준의 개념으로, 빈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건강증진을 모토로 하고 있는 현 보건의료상황에서 볼 때, 위의 빈곤이 발생시키는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전체적 접근을 통한 중재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즉, 빈곤중재에 대한 간호의 책임은 당위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제주 일 지역의 빈곤가족 현황

및 이들에게 현재 행해지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실태를 중심으로, 자원관리와 평가의 조정이라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 압박이라는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의 방향이나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해보고, 둘째, 우리나라 몇 개 지역 모자가족의 수기로부터 발췌한 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 문헌고찰(Sampson, 1994; Garner, Jones, Miner, 1994; Lutenbacher and Hall, 1998, Felner et al., 1995; Flynn, 1997)을 통해 구성된 개념적 틀에 따라, 빈곤가족의 스트레스 경험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취약점과 동시에 강점을 확인하여 자원관리와 평가의 조정을 통한 중재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빈곤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함에 있어서,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빈곤가족의 스트레스 중재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II. 본 론

1. 제주 일 지역 빈곤가족 실태 및 보건복지 정책 현황

1) 빈곤가족의 실태(제주도, 1999)

(1) 저소득 모·부자가정

이의 책정기준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단, 취학 시 20세미만), 모자가정/4인 가족기준 : 월 소득 1,000천원 이하, 재산 4,500만원 이하, 부자가정/4인 가족기준 : 월 소득 1,225천원 이하,

〈표 1〉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구 분	세대수	세대원수	세 대 별 보 호 구 분								
			계	재가 보호	시설 보호	생활보호		한시적생활		국가보훈	미보호
						거택	자활	거택	자활		
모자가정	'99 859	2,479	859	375	38	139	109	69	20	8	101
	'98 717	2,041	717	300	31	113	154	-	-	6	113
부자가정	'99 336	977	336	136	-	27	35	36	15	1	86
	'98 292	856	292	162	-	44	35	-	-	-	51

〈표 2〉 소녀소년가장 가족 현황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미재학자
계	265	46	94	111	4	10
세대주	168	17	48	95	4	4
세대원	97	29	46	16		6

재산 4,500만원이하인 경우이며, 현재, 편모부자가정(저소득) : 1,195세대, 3,456명이다<표 1>.

(2) 소년소녀 가장 가족

만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부모의 사망, 가출 등에 의해 조부모나 가까운 친척 등의 보호자와 함께 있으면서 이들은, 실제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세대주로서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현재 168세대, 265명이다<표 2>.

(3) 생활보호대상자

이의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 : 1. 65세 이상 노쇠자 2. 18세 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질병, 사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1호 내지 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 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에 해당하는 자이다. 또한 일정 소득이하거나 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표 3>이다. 현재, 5,664가구, 10,400명으로, 제주도 인구의 1.9%가 이에 해당한다.

<표 3> 생활보호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 (단위 : 100만원)

구 분	예산액	지 원 내 역
계	448	
국비보조사업	모자가정 140	중학생 및 고교생 자녀학비 아동양육비(6세미만/1일 분유 80g, 525원)
	부자가정 53	
도비보조사업	모자가정 248	기술교육생 생계비 60명, 90백만원 월동준비금 및 자립정착금 220세대 136백만원 인문계고교생 자녀학비 25명 22백만원
	부자가정 7	

2)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 (제주도, 1999)

(1)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이는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계획, 실시되고 있다.

<표 4>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내역 ('99년도 추진계획)

구 분	소 득 (인/월)	재 산 (가구)
일 반	23만원 이하	2,900만원 이하
한 시	23만원 이하	4,400만원 이하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편모부자가정 실태조사 : 1회, 편모부자가정 지원 : 5개 사업 : 433백만원,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 : 31명(중도 포기 2명)이 있으며, '99년도 추진계획<표 4>으로는 편모부자가정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는 의, 식, 주, 건강, 교육, 문화 등 생활실태 전반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은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60명을 대상으로 조리, 미용, 도배, 제과 제빵 등을 교육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수강료(고용촉진훈련비), 생계비(1인/월

300천 원, 6개월 기준)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전 충분한 상담으로 이수 가능 자 선발 및 교육기간 중 교육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자격 취득에 따른 관심도 제고를 위해 해당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며, 사전홍보 철저를 기하기 위해 각종 회의의 시, 언론매체, 여성단체, 읍·면·동 등을 통해 홍보하며, 기술교육 이수 후 자격분야에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의 교육 훈련자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교육 수료자 사랑방 모임 운영 : '97년 이후 도(여성정책과)에서 실시한 기술교육에 참가했던 모자가정 세대주 중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토록 하고 분기별로 운영하며, 자체모임으로 운영하되, 소그룹 단위 별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이들에게 각종 교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양육 등 서로의 살아가는 이야기로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수료한 동일과목으로 재교육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편모부자가정 자기 진작 및 자립의식 고취를 위해 생활체험수기 공모, 시상을 하며, 가족교실(1박 2일)을 운영하여 이 기회에 가족들의 생활고충에 대한 상담과 가족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체험수기를 발표하며, 이를 통해 자립의식을 고

취시킬 계획이다. 한편, 편부모부자가정 지원을 확대하여 중고생 자녀학비(인문교 포함), 아동양육비, 월동준비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고,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하며, 영구임대주택을 이들에게 우선 공급 알선을 해주고, 결연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2) 아동시설 운영 내실화 및 불우 아동 자립지원강화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수준의 적정과 관리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오 보호 아동의 보호와 불우 아동 결연 확대를 자립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98년도에는 아동복지시설 운영(5개소) 및 시설기능 보강사업(2개소) : 1,447백만 원과, 결연 기관 및 입양기관 운영 : 95백만 원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급식비 지원 : 868명, 100백만 원, 소년소녀가장 보호 : 168세대, 187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 5개소 : 1,271백만 원, 시설기능보강 사업 : 1개소 : 11백만 원, 결연 및 입양기관 운영 : 2개소 : 95백만 원, 소년소녀가장보호 : 265명 : 159백만 원, 소년소녀가장 자립 지원금 : 23명 : 46백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강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 향상 및 자활, 자립 기반 조성을 취지로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보호 사업 추진으로 생계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 하에 생계보호인 경우, 1인/월, 거택보호 : 166천 원, 시설보호 : 128천 원으로 주식비, 피복비 등 기본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이 지원내용이다. 또한, 자활자립지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생업 및 전세자금 융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보장지원을 통하여 의료보호를 의료보험의 수준으로 확대하며,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3) 빈곤가족의 실태와 정책현황에 대한 분석

빈곤이라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포함한 가족스트레스의 대처에 있어서, 사회적 정책과 프로그램은 가족이 주요한 위기와 전환에 적응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안내지침이 부재된 곳에서는, 가족 적응은 항상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유해한 부작용을 반복해서 낳게 되고, 가족체계에 부가적인 요구가 발생된다. 만약, 문화 혹은 지역사회가 가족에게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면, 요구의 누적을 처리하는 가족의 능력은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며(Campbell and Ramey, 1994), 만약 지역사회가 안내지침과 지지를 충분히 없게 제공한다면, 가족은 적응과정 동안에 많은 고생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보건복지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의 초점으로 보고자하는 것은 자원의 관리(루스다킨 및 프란실화이어버, 1993)와 평가의 조정(Herbert, Silver and Ellard, 1991)이다. 빈곤가족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위한 지지와, 현 상태에 대한 평가의 조정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란 자원의 이용을 소비적이고 단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곳에 사용하기 보다 생산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평가의 조정이란 현재의 상태를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가족자원이라 하면 이는 가족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대처행위와 전략이 어떤 것이 있으며, 가족이 가족단위 내의 개인으로써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가족이 하나의 단위로써 집단적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자원의 종류는 개인적 자원으로, 유형 : 돈 등의 물질적 자원과, 무형 : 자존감, 타고난 지능, 지식과 기술, 성격특성, 신체적, 정서적 건강, 숙련감, 시간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족적 자원으로 계속력과 적응력을 구성, 회복, 복원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자원 : 신뢰, 감사(이해), 지지, 통합, 개인성의 존중, 부모의 지도력을 분배하고 가족과 세대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 의사소통기술, 가족의 강인성, 가족의 문제해결 능력, 가족의 유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자원으로, 의학적 서비스와 보건 서비스와 같은 모든 범위의 서비스, 가족의 중간환경에 있는 기구, 즉 학교, 교회, 회사와 같은 기구의 서비스, 가족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등이 있으며, 그밖에 스트레스의 대처에 있어서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 사회적 지지(Hashima and Amato, 1994)로는 정서적지지, 존중감의 지지, 관계망의 지지, 평가적지지, 이타적지지가 있다.

이상의 회복 혹은 복원자원들은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대처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빈곤집단에 있어서 취약점이 되는 것은 자원의 절대적 부족뿐만 아니라 자원관리 능력의 부족이 또한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케 하는 주요인이 된다. 따라서 빈곤가족에게 필요한 스트레스 중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자원제공 외에, 자원관리와 관련된 중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루스다킨, 1993).

가족의 평가란 특정한 가족 스트레스, 긴장, 혹은 전환에 대한 것으로, 상황적 평가란 가족이 그들의 요구와

능력에 대한 주관적 정의를 포함하며, 전체적 평가란 가족관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요구를 경험할 때, 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선 경험의 맥락으로부터 해석된다. 해석은 요구가 갖는 수, 조정 가능성의 정도, 잠재적 변화의 양과 같은 많은 요소를 포함하며, 이는 지각이라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자원과 대처행위도 지각에 따라 평가된다. 이러한 것들이 지각된 요구에 부적절하고 불충분하게 여겨질 때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로써 긴장과 스트레스가 생성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처한 가족에게 있어 그들 스스로의 상황적, 전체적 평가에 대한 조정을 적절히 하게 할 수 있다면, 스트레스의 대처에 효과적일 수 있다. 즉,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중재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정서적 측면에 대한 것으로 획일적이고 정형적인 접근이 아닌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형태의 접근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들에게 복원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Henrigues,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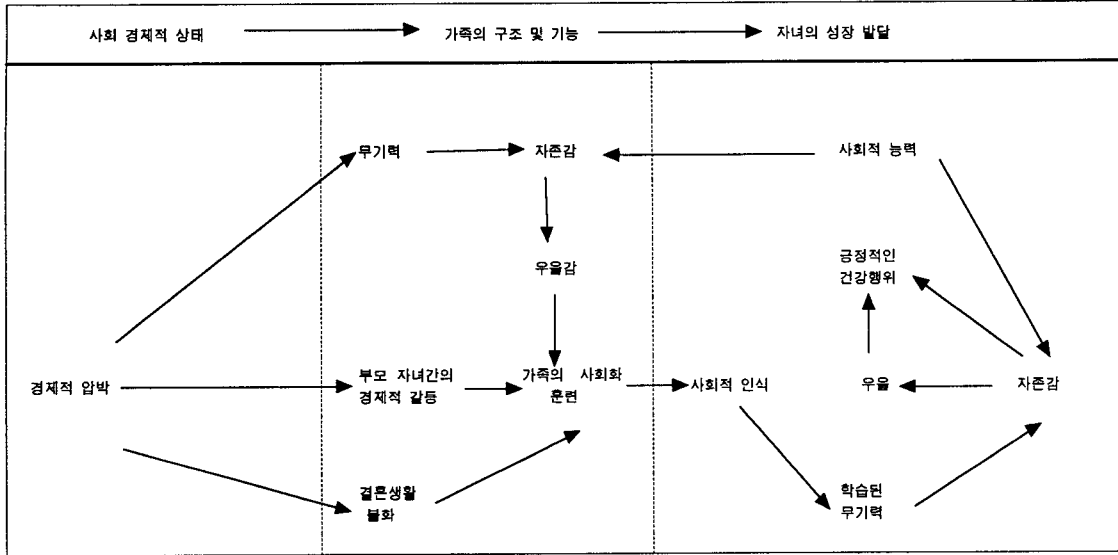
학령기 자녀를 둔 빈곤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에 있어서도 자원과 평가 요소들은 가족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중재프로그램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되고 있는 보건복지 프로그램들을 자원과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확인하여 이의 적절성을 검토하여보고자 한다.

이상의 빈곤가족의 실태 및 보건복지 정책의 현황에서 살펴본 바, 제주 일 지역에 있어서 절대 빈곤가족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날로 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지면서 인간소외의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 시대와 맞물려, 이들에게 복합적인 문제의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되는데 반해, 현행의 보건복지 정책의 취지는 빈곤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게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들에게 교육과 관련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나, 실제로 이들에게 경제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요구되는 적절한 자원의 관리나 적절한 평가의 조정을 위한 지지의 제공면에서 볼 때, 지원되는 수준은 자원의 직접적인 제공 이상이 아니며, 평가조정 면에서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내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모자가정의 가장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기술교육훈련자 관리에 있어서 보면, 정서적지지, 존중감의 지지, 평가적지지, 이타적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가 충분치 않으며, 이들이 교육 후 그들에게 습득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관리내용이 구체적이

지 않으며, 전문적이지 않고, 기술교육 수요자들의 사랑방 모임 운영에 있어서도, 평가를 적절히 조정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배치여부나 필요성에 대한 계획이 세워있지 않다. 이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빈곤가족의 중재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인 자녀세대로의 전이의 단절을 위해 필수적인 빈곤가족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사업내용은 너무나 빈약하다. 특히, 학령기는 앞서도 거론하였지만 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한 사업계획이 전무하다. 그리고 학령기 자녀에게 있어서 학교의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즉, 학교로부터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긍정적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영향을 긍정적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사회 자원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치가 필수적이라 하겠으나, 이에 대한 계획 또한 찾아볼 수 없음이 안타깝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진다.

2. 학령기 자녀를 둔 빈곤가족의 스트레스 경험

이상에서와 같이 학령기 자녀를 둔 빈곤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인 자원관리와 평가의 조정을 통한 중재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함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짐으로, 본 논문에서는 빈곤가족 중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모자가족의 수기에서 발췌한 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빈곤가족의 스트레스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가족에 있어서 학령기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의 기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학자들(Garner, 1994; Felner, Brand, Dubois and Mulhall, 1995; Sampson and Laub, 1994; Conger and Elder, 1994; Flynn, 1997) 등에 의해 계속적으로 검증되어지고 있는 빈곤과 아동 건강 간의 중개요인들을 통합하여 구성한 개념적 틀(그림 1)을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취약점과 동시에 잠점을 확인하여 이상의 자원관리와 평가의 조정을 중심으로 한 중재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1〉 개념적인 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남에 나는 23세 되던 해 나보다 4살 많은 남편과 82년에 결혼을 했다. 세상 물질 모르던 나는 시골 사람들은 다 마운씨가 굵고 소박한 줄만 알았다. 그러한 생각도 잠시 남편은 술만 마셨다하면 주정이 아주 심했으며 마침내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심한되어 결혼한 다음해 우리는 분가하게 되었다. 넉넉하지 않은 살인 중 우리에게 논 780평, 밭 350평, 벼 23가마니를 주셨다. 시부모님은 분가해서 살면 저희들 살인이니 열심히 살고 술도 딱 마시겠지 하고 생각을 하셨나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남편은 분가를 하자 고베 폭진 땅아지처럼 노후에 손을 대는 가하면 술을 마셨다 하면 고주망태가 되어 집에 들어타 나를 때리니 잠을 자다가도 남편에게 맞는 악몽을 꾸게 되었다. 둘째를 낳고 아파서 병원을 다니게 되니 때리는 버릇은 없어졌으나 술버릇과 도박은 여전히 농사철이 되어서도 게으름만 피웠다.

무슨 일이든지 끝을 맺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두어 시간 일을 하다 보면 남편은 어느새 술집에서 술을 마셔 문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기가 일쑤이고 시부모님은 모든 것을 나의 탓으로 돌려 "여자가 잘못이니 남편이 저러지. 이유 없이 그러겠냐"고 나를 나무라시면 청없는 남편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니가 목을 얻어 먹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야단치지 않는다."는 남편의 말에 나는 쓴웃음만이 나올 뿐이었다.

우리는 고추 농사를 천평 정도 지었는데 남편은 밭

에 고추를 심기만 하면 그 후로는 고추밭을 돌아보지 않았다. 고추가 장마에 물려서 못쓰게 되어도 따지 않았도 따 놓은 고추는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밭에 방치하여 고추의 품질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았다. 더구나 남편은 술만 먹으면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로 남하고 싸우고 집 안에 박서는 자는 아이들을 깨워 못쓰게 하기도 했다(14, 15세 남매의 엄마의 수기; 경상북도, 1997).

이 사례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둔 빈곤가족의 스트레스 상황이 묘사되었다. 돈, 숙련감, 지식과 기술, 신체적, 정서적 건강, 시간 등의 개인적(어머니)자원의 부족과 신뢰, 감사(이해), 지지, 통합, 개인성의 존중 등의 가족적 자원의 부족, 특히 분가함으로써 부모의 지도력을 분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잇점을 상실하였으며, 특히 남편이 아내에 대한 정서적 지지, 그리고 시부모가 며느리에 대한 평가적 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렸을 때 친정부모를 잃음으로 해서 관계망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겠다. 또한 위의 개념적 틀에서의 경제적 스트레스→아버지의 무기력→아버지의 자존감의 저하→우울감→알콜 중독→결혼생활의 불화→자녀에 대한 거친 행동의 기전이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자녀에 대한 사회화훈련은 적절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녀들에게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야만 했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의료비와 생활비 지출은 늘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뜻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편사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자녀의 질병→경제적 스트레스 가중). 날마다 술과 킥에 손저건까지 하였습니다(부부간의 불화).

아이에게도 정을 주지 않았으며 술만 먹고 집안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또 다른 시련이 우리가 익어갈 겨를도 없이 닥치고 왔습니다. 아이가 생후 5개월 되던 때 갑자기 장이 꼬여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어려서 수술 후에도 회복하기 힘들었고 어려운 고비를 몇 차례 넘긴 후 갇힌 목숨을 건졌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언청난 병원비를 빚으로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자녀의 질병 혹은 건강상태의 악화→경제적 스트레스 가중).

그러나 남편은 날로 난폭해졌으며 아이 울음소리만 나도 아이에게 돈까먹는 기계라 욕박지르며 집을 나가 술과 킥에 몰두했습니다(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난폭한 태도). 집안 변해 가는 남편을 바라보며 어떻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도 해보았고 남편을 설득도 해 보았지만 그 순간 뿐이었습니다. 너무 살 길이 막막하여 아이를 남겨두고 남편과 싸운 끝에 집을 나갔습니다(병약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수기; 전라남도, 1997).

빈곤과 건강은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례에서는 빈곤가족에게 있어서는 돈과 같은 물질적 자원의 부족 때문에 아이의 질병과 이에 대한 치료비의 부담은 심각한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검증된다. 위의 개념적 틀에서의 자녀의 질병→아버지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가중→아버지의 무기력→아버지의 난폭한 태도→부부간의 불화→자녀의 건강상태의 악화의 기전이 위의 자료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에 대한 사회화가 적절할 수 없으며, 이는 또한 자녀로 하여금 무기력의 학습, 자존감의 저하 등을 발생시켜 결국 긍정적인 건강관리는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언제! 언제!

이렇게 가만히 저 혼자 불려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언저, 아빠가 계시면 더욱 좋겠지 말 언저하고 오빠, 나 이렇게 셋이 살아도 행복합니다. 친구들이 "니네 아빠는 어디 갔어? 니네 아빠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는데, 혹시 안 계시니?" 그런 소리를 들을 때에는 창피하고 난처(사회적 지지의 부족)하지만 그래도 언저 오빠, 나 이렇게 셋이 살아도 좋아요. 언저가 우리 두 남매한테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것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달라고 억 조르질 않는답니다(물질적 결핍, 재정적 갈등).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언저가 가끔씩 일하러 다니시는데 다니시지 말고 집에만 계시면 좋겠어요(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갖을 수 있는 시간의 부족→부적절한 사회화).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오빠도 친구하고 놀러 가는데 저는 친구들이 없어 있기가 너무나 심심하거든요. 하지만 언저가 일하러 다니시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경상북도, 1997).

이 글은 모자가족의 자녀(초등학교 6학년)의 수기이다. 다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사회적 지지의 부족), 물질적 결핍을 절감하며, 엄마와의 정서적 유대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이는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중요한 사회화훈련에 필수적인 시간이라는 자원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며, 위의 개념적 틀에 입각해서 보자면, 경제적 스트레스→부모-자녀 간의 재정적 갈등(물론 위의 자료에서는 내재된 것으로 표현됨)→부적절한 사회화 훈련의 기전이 경험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생각은 눈곱만치도 해주지 않고 우리들 주장만 내세운다는 말씀도 하셨다(부모-자녀간의 재정적 갈등). 한 달에 얼마씩 버는데도 돈이 무척 많이 드는데 전화를 자주하고 114도 많이 해서 전화요금도 엄청 많이 나간 어머니께서 기가 막혔을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의 생각은 조금도 해주지 않고 우리들의 생각만 내세운 것이 무척 처송하였다.

매일 집에 오면 짜증이 났었고 계속 언저들과 싸우기도 한 적이 무척 많았던 것 같았다(부적절한 사회화).

그리고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말하고 그러는데 난 할말이 없어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 혼자 빠져 나간 내 할 일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도 나고 보고싶어 울음을 터트리기도 싶지만 꼭 참았다. 특히 낯 학생등이 일부러 나의 아픈 곳을 찌를 때마다 난 기가 막 죽었다. 그리고, 하루는 제일 큰 언저가 그날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가 버렸다(부적절한 사회적 능력).

어머니께서는 이일 때문에 회사도 못 나가시고 계

속 언니를 찾기엔 하시더니 며칠이 지나자 연락이 되어 찾았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물어보니 혼자서 구찌 분식 집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거기서 먹고, 자고 했다는 것이다. 언니를 찾아서 무척 다행이었다(경상북도, 1997).

이 사례는 형제가 많은 모자가족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글이다. 궁핍한 살림으로 인해 자녀들 모두가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는 것이 확인된다. 위의 이론적 틀에 따르면, 경제적 스트레스→부모-자녀 간의 재정적 갈등→부적절한 사회화→부적절한 사회적 능력의 기전이 검증되었다. 특히 학교라는 자원(지역사회 자원)은 학령기 아동들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요지(Posner and Vandell, 1994)라고 보나, 실제로는 오히려 이들에게 자존감의 상실이나 무기력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확인된다.

코헨(Cohen, 1955)이 하류층 청소년 문제에 집중하여 선택적 낙인 과정과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에서 보면,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성장해 온 아이들이 계급적 차이를 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가정이나 이웃의 율타리에서 벗어나 여러 상이한 가정 출신의 아이들이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 생활하는 학교라는 기관에 접하게 되면서 사회화 과정에서 비롯된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이른바 ‘적응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 내용 면에서나 그 기관의 구성원 면에서나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미국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인 중간 계층 규범을 여실히 드러내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사회에서의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욕구 충족을 억제하고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임하게 된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이웃에서 동료와의 우애, 즉각적인 욕구 충족, 감정에의 의존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해 온 노동자 계급 가정 출신의 청소년들은 중산층 규범이 지배하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노동 계급 청소년들은 학교성적이나 품행면에서 좋게 평가받기가 어려워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라는 환경이 비슷하여 학교에서 같은 부적응을 겪고 있는 문제아끼리 갱 집단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자존심을 공동으로 방어하는 수단으로 집단적으로 비행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비행 하위문화는 학교 생활에 적절히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노동계급 청

소년들이 박탈된 자신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새로운 적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하나의 적응 양식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하위문화는 그 구성원들에게 박탈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범과 기법을 제공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중산층 규범에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들이 자라는 문화 속에서 배운 남성다움을 마음껏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들이 자라는 문화 속에서 배운 남성다움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 요컨대 비행 하위문화는 그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갱 집단에 참여하는 아이들 중에는 자신의 사회적 정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이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받은 경멸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특히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서 통솔되는 특정 갱 집단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갱 집단에 가입하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동기들은 결국은 애매한 자신의 정체감을 분명히 확립하고자 하는 욕구와 위협받고 있는 자신의 자존심을 보호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학교가 빈곤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다시 확인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중재전략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이상에서와 같이 학령기 자녀를 둔 빈곤가족은 물질적 자원의 절대적 결핍 뿐만 아니라 자녀의 사회화라는 중요한 과업의 달성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들 가족 중 몇몇은 그들이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들 가족에 대한 평가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적 스트레스를 적절히 극복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다.

“등에 피는 백합하듯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신지도 거두지도 아니 하는데 천부께서 먹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인가 보나 강하고 닥대하라. 농가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어 된어니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들으며 힘든 삶을 이기며 살아갑니다(영적 믿음).

나의 고리타픈은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텅으로 산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이기며 아이들의 힘든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당장의 물질은 얻기 위해서보다 아이들에게 제가 필요한 순간이 더 큰 교육이냐는 것

을 믿고 유치원에 자모회의가 있어도 아이의 소풍이 있어도 빠진없이 참석하여 엄마의 역할을 해내며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선물(아이들)을 제가 청지기의 사명으로 온전히 감당케 하옵시고 먼수타 경수가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안에 살기를 원하며 물질이 부족하여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미리 예비해 주소서(전라남도, 1997).

영적 자원은 가족자원에서 상당한 위력을 행사한다. 빈곤가족이 겪는 불확실한 미래,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위기에 처했을 때 영적인 믿음은 가족의 복원력을 증진시킨다. 물론 교회(종교 기관)와 빈곤가족과의 연결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이 가능하며, 교회는 관계망의 지지, 정서적지지, 이타적지지 등의 사회적 지지의 자원이기도 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넘는 지금 그렇게 애추 먹이던 남편의 빈자리가 가끔씩 느껴진다. 내가 힘겹고 하나님이 내한 함께 하시고 길거리에서 가끔 마주치는 구경을 하는 장애인을 보면 내게 보이는 눈과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다는 것에 다시금 감사할 마음이 든다(가족의 평가).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하나님 믿으며 건강하고 밝게 사는 것이다. 남들은 흔히 자식 키워 놓으면 훌쩍이며 천대하고 처자식 밖에 모른다며 재혼을 권유하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자식 잘되기만을 바랄 뿐이다(상황적 평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전체적 평가) 아이들을 키우고 열심히 한번 살아볼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남편이 없이 홀로 가계를 꾸려나가는 궁핍한 상황임에도 자신보다 더욱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더 이상 불행하게 평가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막상 혼자이고 보니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두렵고 무섭지만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나는 젊고 꿈도 있으며 나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긍정적인 상황적 평가).

참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힘습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자신 있다. 그러기에 더욱 아름답게

살 것이다(전라남도, 1997).

이 사례에서는 자녀양육의 지지결핍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자원의 부족에 대한 상황적 평가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는 이분을 무척 존경한다. 남편없는 사람이 아닌 것 처럼 밝으시고 유준 인기가수 그룹인 멤버들 이혼까지 다 힘우신 정도로 우리한테 친구처럼 지내시려고 노력하신다. 나도 얼마 처럼 얼마에게 맞춰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게 바로 사랑같다. 서로에게 맞춰 가며 살아 가는 것. 난 그 대상을 얼마라는 사람으로 정한 것이다. 이게 얼마한테 나 사이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또 얼마를 미워하고 짜증이 날때도 있겠지만, 난 그럴때마다, 얼마가 우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할 것이다. 비록 다른 아이들과는 약간 다른생활을 하고 있고, 아빠한테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그립지만, 얼마의 사랑이 나의 약하고 여린 마음을 모두 감싸준다(모성애의 결과로 자녀의 자존감의 증진).

엄마는 가끔 잠이 오진 않는 밤이며 숨을 드시고 잠을 청하곤 하신다. 난 지금도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를 이해해야겠다. 그리고 엄마가 숨을 드시지 않고도 편안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얼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웃으시는 엄마를 만 들어 드려야겠다.

그 날을 위해 나는 오늘도 이를 악물고, 책상위에 앉을 것이다. 엄마의 역할에,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환한 그 웃음을 보기 위해...

위의 사례는 빈곤한 가족 상황을 극복하고 학교에서 학업이나品行 면에서 모두 모범생으로 인정받는 초등 학교 6학년 학생의 수기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으로, 여기서는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강인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자녀의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이로 인해 결국 인간승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부모의 자존감은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 긍정적인 가족의 평가를 낳고, 이는 자녀의 자존감을 증진시키며, 자녀의 성취력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부모의 자존감이 증진되고 이러한 고리는 계속 긍정적 회환을 가져올 것이다.

저는 누구하나 의논할 사람없어 당장 눈앞의 시어

머니 병간호사 10살, 9살, 8살, 6살, 4살, 3살의 어린아이 등을 재상도 없고 배운것도 없이 혼자서 어떻게 키웁니까? 걱정이 태산같았습니다. 정말감에 빠져 하늘만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차라리 그대오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중 마음 이장님이 저의 딱한 사정을 연사무소에 말씀하셔서 담당자가 저의 집을 방문하고 그동안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생황보호대상자로 책정해주어 생계비 지원타의 유보카드, 학비보조 등 떨어지지 않는 커다란 도움으로 어린 자녀를 키우게 되었고, 그후 어머니도 병세가 호전되어 저는 더욱 더 열심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입식부엌으로 고친 후(효율적인 자원관리) 어느정도 가사일을 어머니이 도와주시자, 식당종업원, 파출부 등 돈이 되는 일은 가리지 않고 하였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은 30평 남짓한 스타벅사섯 재배사 한등을 지어저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없는 살림에다 힘들지만 아이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 낳말을 듣지 않게 하려고 남에게 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강인성). 다행히 아이들이 사춘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성격이 우수해 장학금도 타고 딸딸은 직업전선에 나가기 위해 직업훈련 2년 과정을 착실히 이수중이어서 더욱 더 용기를 얻고 큰 힘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랄때에도 딸이라는 이유로 귀여운도 받지 못했지만 언젠가 고생한다며 집안일을 분담하여 돕고 동생들 공부도 시키는 등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 저는 3년전부터 마음 부녀히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조금씩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자로써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지지).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듯 저는 삶의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동안 새로운 삶의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길이 멀고 험하다고 주저안지 않고 희망의 불빛을 따라 힘겹지만 항경은 항경은 나오다보니 어느새 우리 에겐 희망이 배로 커져 있었습니다(희망).

세월은 흘러가고 절망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 는 마음과 희망을 안고 산다면 맞입니다.

위의 사례는 만성적인 빈곤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그린 성공적인 예이다.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이 가족의 복원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강인성, 희망 등의 자원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절대적인 복원요소이다.

Ⅲ. 결론 및 제언

가족생활주기에 있어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자녀의 교육과 사회화이다. 그러나, 학령기 자녀를 둔 빈곤가족에 있어서, 경제적 압박은 자녀의 교육과 사회화에 필요한 자원의 절대적 부족과 가족 평가의 부적절함뿐만 아니라 이들 한정된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나 적절한 평가를 위한 조정을 위한 장치가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제주 일 지역의 빈곤가족 현황 및 이들에게 행해지고 있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자원관리와 평가의 조정이라는 기준에 따라 현행의 보건복지 정책이 빈곤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중재하는데 있어서, 그 방향이나 내용이 적절 한지를 검토해 보고, 둘째, 우리나라 몇 개 지역의 모자 가족 수기에서 발췌한 질적자료를, 본 논문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구성한 개념적 틀에 따라 분석하여, 학령기 자녀를 둔 빈곤가족의 스트레스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덧붙여, 이상의 자료에서 이들 가족에게 취약점인 동시에 강점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여 자원관리와 평가의 조정을 통한 중재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확인된 결과는 첫째, 제주 일 지역에 있어서 절대 빈곤가족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복합적인 문제의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되는데 반해, 현행의 정책의 현황에서 지원되는 수준은 자원의 직접적인 제공 이상이 아니며, 자원관리 또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가 없었다. 평가의 조정 면에서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 기술교육 훈련과 같은 정책의 수행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둘째, 본 논문에서 구성한 개념적 틀 : 경제적압박→부모의 무기력→자존감의 저하→결혼생활의 불화→부모-자녀 간의 재정적 긴장→부적절한 사회화→자녀의 사회적 능력의 불량 : 이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질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빈곤을 극복한 가족 (healing family)에게서 여러 가지 강점 : 희망, 강인성, 사회적지지 등 : 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위에서 고찰한 회복 혹은 복원 요소들과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을 제언한다. 앞으로의 대 빈곤정책은 자원의 직접적인 제공뿐만 아

니라, 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원관리와 평가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특히 학령기 아동은 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이들을 중재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원은 정서노동이므로 간호는 여기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중재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희경 (1997). "간호의 책임 : 빈곤 속의 아동". 제주학 라대학 논문집, 21집.
- 경상북도 (1997). "늘푸른 나무가 되어". 모자가정 생활수기 제10집.
- 대구광역시 (1997). "더불어 살고 싶은 행복". 가정폭력 상담사례집 제1집.
- 부산광역시 (1997).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모자가정 생활수기 제1집.
- 제주도 (1999). 保健福祉行政現況.
- 제주도 (1999). 여성정책.
- 루스디컨 및 프란실화이어버, 가정관리학 연구회 역 (1993). 가족 자원관리. 한울아카데미.
- 전라남도 (1997). "희망의 빛을 찾아". 모자가정 생활수기 제4집.
- 전라북도 (1997). "또 다른 행복을 위한 서곡". 모자가정 생활수기 제8집.
- 충청남도 (1997). "희망의 계단을 밟아가며". 모자가정 생활수기 제3집.
- 충청북도 (1997). "내일은 행복". 모자가정 생활수기 제7집.
- 충청북도 (1998). "더불어 사는 지혜". 여성상담 사례집 제1집.
- Amaya, M. A., Ackall, G., Pingitore, N., & Quiroga, M. (1997). "Childhood Lead Poisoning on the US-Mexico Border : A Case Study in Environmental Health Nursing Lead Poisoning". Public Health Nursing, 14(6), 353-360.
- Antonovsky, A., and Sourani, T. (1988).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9-92.
- Backlund, E., Sorlie, P. D., and Johnson, A. J. (1996). "The Shap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Mortality". AEP, 6(1), 12-20.
- Barra, X. (1997). "Poverty : The Main Cause of Ill Health in Urban Children". Health Education & Behavior, 25(1), 46-59.
- Bolger, K. E., Patterson, C. J., and Thompson, W. N., & Kupersmidt, J. B. (1995).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1107-1129.
- Brown, J. L., and Pollitt, K. (1996). "Malnutrition, Poverty and Intellectual Development". Scientific American.
- Campbell, F. A., & Ramey, C. T. (1994). "Effects of Early Intervention on Intellectual and Academic Achievement : A Follow-up Study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684-698.
- Caughy, M. O., Dipietro, J. A., and Strobino, D. M. (1994). "Day-Care Participation as a Protective Factor in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Low-Income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 457-471.
- Cohen, A. K. (1955). Delinquent Boys : The Culture of the gang. New York : The Free Press.
- Conger, R. D., Ge, X., Elder, G. H., Frederick, J., and Simno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4). "Socialization Mediators of the Rel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Conduct Problems". Child Development, 65, 649-665.
- Felner, R. D., Brand, S., DuBois, D. L., and Adan, A. M. (1995). "Socioeconomic Disadvantage, Proximal Environmental Experiences, and Socioemotion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 Investigation of a Mediated Effects Model". Child Development, 66, 774-792.

- Flynn, L. (1997). "The Health Practices Of Homeless Women : A Causal Model". Nursing Research, 46(2).
- Garner, P. N., Jones, D. C., and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Hashima, P. Y., and Amato, P. R. (1994). "Poverty, Social Support, and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394-403.
- Henriques, J. (1995). "The nurse Who empowers the Poor". Nursing Standard, 9(45).
- Herbert, T. B., Silver, R. C., and Ellard, J. H. (1991). "Coping with an Abusive Relationship : I How and Why Do Women Sta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1-325.
- Hoskins, R., & Lakey, T. (1997). "Till death us do part". Nursing Times, 1(93), 32.
- Huston, A. C. (1994). "Children in Poverty : Designing Reseach to Affect Policy".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8(2).
- Huston, A. C., McLoyd, V. C., & Coll, C. G. (1994). "Children and Poverty : Issues in Contemporary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275-282.
- Lutenbacher, M., & Hall, L. A. (1998). "The Effects of Maternal Psychosocial Factors on Parenfing Attitudes of Low-Income, Single Mothers with Young Children". Nursing Research, 47(1).
- Nelson, M. A. (1994). "Economic impoverishment as a health risk : Methodologic and con issues". ANS, 16(3), 1-12.
- Olson, D. H., and Lavee, Y. (1989). "Family Systems and Family Stress : A Family Life Cycle Perspective". K. Kreppner and R. H. Lerner, Family Systems and Life-Span Development,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Phillips, D. A., Voran, M., Kisker, E., Howes, C., & Whitebook, M. (1994). "Child care for Children in Poverty : Opportunity or Inequity?" Child Development, 65, 472-492.
- Posner, J. K., and Vandell, D. L. (1994). "Low-In-

come Chileren's After-School Care :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Sampson, R. J., & Laub, J. H. (1994).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 A New Loc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 523-540.

- Abstract -

Key concept : Poor Family, School Children, Economic stress

A Study on Stress in Poor Families with School Children

*Kang, Hee Kyeung**

In the family life cycle, the most important task the families with school children should perform is 'child education' and 'socialization'. However, economic stress on poor families with school children presents multiple problems through the shortage of resources necessary for child education and socialization, inappropriateness of family appraisal, and the insufficiency of the control channel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se confined resources and appropriate appraisal.

The objectives of this article are :

First, to report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oor families in one area of Cheju and on the relevant health welfare policy, and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direction and the substance of this policy in terms of the intervention in economic stress on the poor families under the categories of resource management and control of appraisal.

Second, to analyze qualitative data extracted from the memoirs of single-parent families living in several areas of Korea under the conceptual framework constructed by literature review in order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stress which poor families with school children have experienced.

* Department of Nursing, Cheju Halla College

And third, to confirm the factors that can be risk factor but, at the same time, strength to these poor families from presented data and to use them as the basic data from which an intervention model can be developed, based on resource management and control of appraisal.

The findings of this article are :

First, while the number of absolute poor families in one area of Cheju is increasing and, as a result, the danger of the possibility that multiple problems will occur is also growing, the supporting level of the current policy is no more than a direct resource offer and there is no evidence that resource management is being professionally carried out. When it comes to control of appraisal, due to absence of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in this matter, policy performances such as technical education training can have a negative impact.

Second, a conceptual framework introduced in this article, ; Economic Pressure→Helplessness→

Poor self-esteem→Marital Conflict→Parent-Child financial conflict→Inappropriate socialization→Poor child social competence : is partly verified.

And third, judging from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data, it is confirmed that the healing families, having overcome poverty, show several positive characteristics including : hope, strength, and social support. These findings are identified with the factors of resiliency considered above.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

The anti-poverty policy in the future should focus not only on a direct resource offer but also on resource management and the control of appraisal that can magnify its effects. In particular, clos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chool children since they are in the most crucial period for socialization. Moreover, an emotional labor is such an essential resource for intervention that skilled nurses should play pivotal roles.